

## 해외 MVNO 규제관련 동향과 시사점

\*김병운, 이동희, 이경희

\*한국전자통신연구원

bukim@etri.re.kr dhlee76@etri.re.kr khlee428@etri.re.kr

### Trends and Implications of Overseas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Regulations

\*Kim Byung Woon, Lee Dong Hee, Lee Kyong Hee

\*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

#### 요 약

해외 통신규제 선진국들은 이동통신시장에 MVNO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. 이러한 제도화에 따라 유선사업자 및 비통신사업자들은 독립적인 요금 및 마케팅전략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이동통신시장의 MVNO 규제관련 동향을 검토하고 국내 시사점을 제시한다.

#### I. 서 론

2003년 7월 25일 이후 정보통신부(MIC;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)는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기반경쟁(SBC; Service-based Competition)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. 또한 KT, 하나로통신, 데이콤 및 온세통신 등의 유선사업자(FNO; Fixed Network Operator) 들은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편의 증대 차원에서 이동전화사업자(MNO; Mobile Network Operator)의 주파수를 이용(using)하여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망사업자(MVNO;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) 제도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.

통신규제 선진국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, Oftel은 1999년 10월, MVNO관련 지침서(Directive)를 발표하였다[7, 8]. 이후 FNO인 One.Tel, BT, Kingston Communications 및 Energis 등은 자사의 유선서비스의 보완, 기업고객 대상의 융합서비스 제공 및 광대역유선망서비스의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였다. 특히, One.Tel은 2001년 11월, BT Cellnet(현 mm02)의 망을 이용하여 Vodafone 대비 월기본료 60%, 통화료 20% 할인된 요금<sup>1)</sup>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

제공하였다. 또한 BT는 2002년 10월, BT Cellnet으로 부터 망설비(Network Capacity)를 구매하여 "Mobile Sense"라는 브랜드로 Vodafone 대비 월기본료 20%, 통화료 20% 할인된 요금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였다[2].

이러한 영국 FNOs의 성공적인 이동전화시장 진입은 통신규제기관인 Oftel(현, Ofcom)의 MVNO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FNO의 서비스 보완 차원 뿐만 아니라 비통신사업인 Virgin Mobile의 MVNO 성공사례<sup>2)</sup>, 그리고 시장조사 기관인 Ovum의 수익가능성 예측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[8]. 특히, Ovum은 2006년 영국 이동전화 전체 가입자 중에서 MVNO의 가입자가 10.9%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도 MVNO 가입자가 이동전화 전체가입자 중에서 23.7%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<sup>3)</sup>[11]. 본 연구에서는 해외 MVNO 규제관련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

2) 비통신사업자인 Virgin Mobile은 One2One (현 T-Mobile)과 50:50 출자방식으로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99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2004년 12월 현재, 가입자 기준으로 이동통신시장 전체의 8.4%를 점유하고 있다. 이 회사는 Vodafone대비 MM(타망 기준) 30% 할인된 통화요금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[12]

3) 덴마크는 시장지배적사업자(SMP; Significant Market Power)인 MNO에 대해, FNO와 동일한 망개방(Open Network)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.

1) 타망 MM(Mobile to Mobile) 통화료 기준이며, 동일망 MM 통화료는 Vodafone과 동일하다.